

# 韓國傳統思想과 環境論\*

羅 禎 源 (강원대)

## I. 環境論의 구조와 20세기 서구정치사상

21세기를 맞는 우리들,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전 지구적인 대기오염 문제, 이상기후 현상, 핵실험과 전쟁, 경제적인 남북갈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그린라운드의 대두,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 등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에서부터, 남비현상, 원전설치 반대, 핵폐기물 저장소 설치 반대,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문제 등 국내적인 환경문제 등도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또한 도시의 대기오염, 갈수기의 수질오염, 공장폐수, 토양오염, 자원고갈 등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제들도 세기말적 증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래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본격적으로 서양의 근대사회에서 제기되기 시작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역사적으로 환경문제에 따라 환경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서양에서도 環境論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環境論을 한국에서도 실험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이다.<sup>1)</sup> 환경에 대한 모든 논의는 모두 環境論이다. 하지만 환

\* 이 논문은 1996年度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1) 서구의 환경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저술들은 풍부한 편이다. 데이비드 페퍼, 『현대환경론』(한길사, 1989)에서는 환경론을 기술지향적 환경론, 생태지향적 환경론, 마르크스 주의적 환경론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문순홍,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나라사랑, 1992)에서는 환경론을 근본생태론과 사회생태론, 생태사회주의와 생태 마르크스 주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존 드라이잭, 『환경문제와 사회적 선택』, 김태경 외 옮김, 신구문화사, 1995, 신구문화사, 『지구환경과 사회이론』, 이기홍 외 옮김, 한울, 1997 등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문제의 맥락을 다양한 각도에서

경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논의의 수 만큼이나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별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環境論의 홍수에 빠져서 논쟁의 초점을 잃고 대안의 형성으로까지 나가지 못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따라서 環境論에 대한 기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구의 環境論을 분별하고 우리나라의 環境論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자 나름대로 環境論의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環境論은 크게 보아 환경에 대한 現象論, 認識論과 存在論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現象論은 환경의 오염이나 환경의 파괴와 같은 환경 현상에 대한 고발, 인식, 문제제기이다. 이 現象論은 모든 環境論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그러나 現象論에만 머무를 경우 대안제시로는 발전하지 못한 채 문제제기나 상황인식에 그치거나, 소박한 수준에서 생활 속의 실천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認識論이나 存在論을 막연하게 인식하는 수준에서 여러 환경이론들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면서 기존의 환경정책에 대해 정책적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시하며, 따라서 실천방향의 설정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환경운동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발견된다. 두 번째의 認識論은 世界觀과 人間觀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世界觀은 宗教的 차원이다. 환경과 관련하여 유신론적 입장일 경우 神을, 무신론적 입장일 경우 외부세계로서의 自然(Nature, Physis)을 규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관련된다. 또한 人間觀은 哲學的, 道德的 차원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과학)기술, 理性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본성에 대한 규정, 대상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규정(자연은 인간의 도구인가 아니면 인간과 조화의 대상인가의 문제, 정신과 물질사이의 관계 등)이 그 구성 내용이다. 認識論은 宗教的, 哲學的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실천을 위한 근본적인 또는 새로운 認識論은 이 차원에서 개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存在論은 政治經濟學的, 理念的 차원이다. 認識論과 관계를 맺으면서 近代化, 發展, 開發에 대한 태도가 여기서는 문제가 된다.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이 구별되지만 이 두 차원은 엄격히 차별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政治的

---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수복과 구도완 등의 한국적 환경이론의 실천적 모색작업도 주목할 만하다(정수복,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지성사, 1995,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96. 구도완, 『한국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서울대, 1994, 『전문환경운동의 평가와 녹색정치적 전망』, 1995 - 환경과 생명, 『정의롭고 지탱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 1996 - 경제와 사회 등).

차원은 個人, 社會, 國家에 대한 개념과 상관관계에 대한 규정을 기초로 하여 (自由)民主主義와 社會主義를 축으로 理念的 편차를 형성한다. 또한 經濟的 차원은 財產權, 産業 등 의식주와 관계된 경제적 사항들에 대한 내용의 규정 정도를 기초로 하여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를 축으로 그 내용을 구성한다. 특히 이 存在論에서는 서구의 다양한 環境論들이 이념적인 수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책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다. 政治經濟學的, 理念的, 政策的인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環境論의 구성을 구체적인 하나의 環境論에 적용시켜 그 적실성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保守的 技術指向主義(Cornucopians)<sup>2)</sup>는 우선 환경에 대한 現象論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문제제기이다. 認識論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기술을 도구로 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人間觀을 갖고 있으며 世界觀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을 자연 속에서 중심의 지위에 놓고 자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存在論의 측면에서 보면 근대화와 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태도에서 성장과 개발계획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경제관의 측면에서 보면 소유와 개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保守的 技術指向主義는 現象論, 認識論, 存在論 측면에서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環境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環境論의 입장에서 제시되는 대안도 논리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 하여튼 필자가 정리한 環境論의 구성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데이비드 페퍼, 앞의 책, p.63에서는 환경론을 생태지향주의와 기술지향주의로 나누고 기술지향주의는 진보적 기술지향주의와 보수적 기술지향주의, 생태지향주의는 진보적 생태지향주의와 보수적 생태지향주의로 나누고 있다.

## 環境論의구조

	성격의 구분	기본인식과 내용		논의 차원	대안의 수준
現象論	狀況論	환경상황에 대한 인식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의 현실에 대한 고찰과 인식, 문제제기	문제제기	기존제도비판 생활 속의 실천
認識論	世界觀	신 또는 외부세계로서의 자연 (Nature)에 대한 태도	신과 인간간의 관계 인간의 자연 속에서의 지위(인간관과 중복가능)	宗教的	생활 속의 실천 인식의 대전환
	人間觀	인간과 자연, 인간과 (과학) 기술, 이성에 대한 태도	인간본성의 문제 인간과 자연의 문제 (도구화와 조화의 문제)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	倫理的 哲學的	생활 속의 실천 인식의 대전환
存在論	政治觀	(自由)民主主義와 社會主義, 近代化·發展에 대한 태도	개인, 사회, 국가에 대한 개념과 상관관계의 규정	政治經濟學的 理念的 政策的	정치이념의 비판과 재검토 정책제시
	經濟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近代化와 開發에 대한 태도	所有權, 産業, 衣食住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규정	政治經濟學的 理念的 政策的	경제이념의 비판과 재검토 정책제시

환경에 대한 어떤 논의도 위의 狀況論, 認識論, 存在論 가운데 적어도 한가지 논의는 명시적으로 갖고 있어야 環境論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 가지를 모두 갖는 경우 대안의 논리적 완결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도 다른 논의는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논의나 대안의 수준을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구의 環境論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위기를 맞고 있다.<sup>3)</sup> 다양한 環境論이 제시되는 것 자체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環境論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서구 環境論의 발생 배경인 서구에서도 재검토되고 있는 環境論들이 한국에서 적실성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資本主義가 서구 資本主義 체제의 일부로 形成·發展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나름의 환경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

3) 황태연,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나남: 1992), pp.45-72와 이기홍 역, 앞의 책, pp.94-125에서 급진적 환경이론과 신고전주의 환경론의 위기를 참조.

실에 맞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립의 가능성은 서구 環境論의 변용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 전통사상 체계에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전통사상 체계는 환경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대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으로는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할 때, 우리 전통사상체계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II. 한국전통사상과 環境論

한국전통사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우선 문제가 될 수 있다. 朝鮮祖 중·후기에 도입된 가톨릭이나 개신교뿐 아니라 三國時代 이전에 도입된 儒敎, 4-5세기에 도입된 佛敎, 그 이후의 道敎, 性理學 등도 엄격히 구분하면 우리의 전통사상은 아니다. 우리 본래의 것은 巫俗밖에 없다고 해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習合, 混在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외래적이었지만 도입후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전통 속에 肉化되고 內面化된 사상들은 한국전통사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형성이나 도입, 발전 순서에 따라 巫俗, 風水, 儒敎, 佛敎, 道敎(道家), 東學을 전통사상의 범주에 넣고, 서양의 가톨릭과 개신교는 일단 제외하였다.

또한 각 사상체계의 環境論 분석에서 각 사상체계를 環境論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으며, 그대신 각 사상(종교)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논의를 필자가 제시한 環境論의 구조에 따라 재정리하였다. 따라서 필자가 참고한 문헌들은 당연히 각 사상체계의 원전이 아니라 원전에 대한 해설의 내용을 담은 2차 자료들이다.

### a. 巫俗信仰과 生態主義

巫俗의 전반적인 특징은 現實中心主義와 人間中心主義로 요약된다. 이것은 巫俗에서 중시하는 고대의 聖域思想과 神聖族意識의 해석에 근거한다. 삶을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 곧 '지금' '이곳'을 중요시하는 “現實中心主義”와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 곧 죽은 조상이나 보이지 않는 신들보다도 살아있는 사람들

을 더 중요시하는 “人間中心主義”<sup>4)</sup>라고 한다.

古代 巫俗<sup>5)</sup>의 人間觀과 世界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巫俗은 우주 질서 이해의 원리로 陰陽五行論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고대의 始祖神話에서 天과 地, 神男聖女로 상징되는 조화에 의한 神聖君主의 탄생을 원형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내면적 조화를 믿는 조화론적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 神人無別의 인간세 중심적인 신앙태도, 조화와 질서, 균형과 화해, 인간과 자연사이의 대화와 교섭을 기저로 하는 조화론적 인식태도를 巫俗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巫俗에서의 人間觀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sup>6)</sup> 먼저 인간은 合自然的 存在이다. 인간이란 자연질서의 범위 안에서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우주 안의 자연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해도 자연을 소유한다거나 자연을 지배하려는 의도는 철저히 배제하고 인간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자연질서를 거역하려는 인위성도 배제한다. 둘째로 인간은 關係內的 存在이다. 인간은 單獨者, 個別者로서는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은 반드시 가족, 부락 공동체, 국가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셋째로 인간은 倫理的 存在이다. 인간은 자연질서에 순응하는 소극적 윤리와, 가족공동체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적극적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넷째로 인간은 삶의 존재로서 현세적 삶의 현실에 절대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상에서 보면 巫俗信仰에서는 世界觀과 人間觀은 분명히 제시되고 있으며, 政治觀에서도 개인·사회·국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장도 나타난다. 경제관은 소극적인 입장에서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환경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주하는 現象論을 巫俗信仰과 결부시킬 경우 우리는 주로 認識論의 측면에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巫俗의인 世界觀과 人間觀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대전환이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한 생활 속의 실천이다.

4) 金仁會, 『韓國巫俗思想研究』(集文堂: 1988), p.14.

5) 金仁會, 위의 책, pp.89-110.

6) 金仁會, 위의 책, pp.177-187.

## b. 風水思想과 環境論

먼저 認識論<sup>7)</sup>의 측면을 보면 世界觀의 차원에서 氣를 천지만물의 존재 운동의 법칙, 존재의 원천(Vital Energy), 또한 세상의 모든 사물을 구성하고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기초로 본다. 그 이론적 체계는 陰陽五行說과 理氣說, 周易으로 구성된다. 風水가 초기에는 陰陽五行說과 결부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이것이 하나의 지리사상으로 확립된 이후에는 가장 큰 사상적 기초가 되었으며, 風水術法의 용어들도 陰陽五行說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또한 朱子의 理氣說을 도입하여 理가 氣를 주재하여 萬象과 萬物의 生滅과 運行을 주도한다고 본다. 이는 陰陽五行의 理致 때문에 사람과 자연을 氣를 통하여 연결한다.

周易<sup>8)</sup>에서 8卦의 相은 天, 地, 雷, 風, 水, 火, 山, 澤으로 이 여덟 가지 物象은 상호관계 속에서 天地, 雷風, 水火, 山澤이 定位, 通氣, 相薄, 相逮한다고 보며, 일체의 우주는 항상 변화한다고 본다. 주요한 변화인 태양의 변화, 달의 변화에서도 終卽有始, 無始無終의 恒久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또한 人間觀의 차원에서 보면 도덕을 자연세계의 질서, 자연을 이끌어 가는 힘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면서, 仁義는 인간사회에서 구현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바람직한 가치로 보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필요한 仁義는 자연세계에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은 合一된다. 자연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인간과 感通한다. 인간과 자연, 개체와 전체는 '함께 흘러간다'. 즉, 인륜을 위주로 하면서 덕을 쌓는 것이 곧 風水라고 본다. 風水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混融·造化시키고자 하는 사상이다. 風水에서는 모든 인간을 고귀하고 평등하게 본다.

이상에서 보면 風水思想에도 認識論은 世界觀과 人間觀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또한 現象論의 측면에서도 문제제기의 수준을 넘어 생활 속의 실천수준 또는 인식의 대전환 수준에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은 물론, 그것을 이용과 소유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잘못된 地理觀, 土地觀을 없애버리고, 땅과 사람이 서로를 살리는 相生의 風水 본질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sup>9)</sup>고 주장

7)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 한국풍수의 이론과 실제』(서해문집: 1990), pp.23-43.

8) 박신환, 「주역에서의 자연관」, 『동양사상과 환경문제』(모색: 1996), pp.225-254.

한다. 風水의 논리는 삶터 회복의 지리학이며, 비인간적인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계량화로는 결코 그려내지 못할 인간적인 삶터를 살리는 것이다.<sup>10)</sup>

風水思想이 환경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고도 시급하다는 주장, 특히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이나, 장노년층의 환경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는 風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風水值라는 개념을 새로이 만들어 각 지방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영향 평가에서의 차별적 지역성을 부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風水 논리체계의 현대적 재정리와 風水思想과 현대적 학문의 연구성과를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風水思想이건 서양의 공간 관련 학문이건 어느 것이나 인간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나온 분야들이다. 이를 위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sup>11)</sup>고 한다.

### c. 儒敎와 環境論

儒敎에서는 주로 仁의 개념에서 世界觀과 人間觀을 찾고 있다. 자연에 대한 儒敎의 전통적 인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인간과 대립되는 대상물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儒敎의 관념에 있어 자연은 서양의 경우에서와 같이 대응하고 극복하고 가공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인간은 거대한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물론 인간은 만물의 영장, 즉 자연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인간의 역할은 자연을 가공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에 참여하고 자연의 변화와 하나(合一)가 되는 데에 있다. 자연의 순조로운 변화는 만물을 소생시키고 만물을 자라나게 하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이 같은 관념을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개념이 儒敎에 있어서의 “萬物一體의 仁”이라고 하는 개념일 것이다. 儒敎에 있어서의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사랑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일 뿐

9) 최창조, 위의 책, p.189.

10) 최창조, 위의 책, p.192.

11) 최창조, 위의 책, p.220.



이다. 무턱대고 ‘남’을 사랑하라는 추상적인 요구가 아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미루고 확장하여 그 마음으로써 ‘남’을 사랑하고 나아가 ‘萬物’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확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일체감’으로 설명되는 “萬物一體의 仁”인 것이다.<sup>12)</sup>

儒敎는 天地人의 조화로움을 哲學的 이념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天地人(물, 땅, 사람)의 조화관 相生하는 理致 위에 바르게 서 있을 때만이 가능한 원리이다. 이 원리를 지탱하는 큰 줄기는 相存의 大德, 즉 天地(자연)에 대한 경외와 자연에 깃들고 있는 인간의 겸손이다.<sup>13)</sup>

바로 이 같은 사상이 儒敎의 ‘萬物一體의 仁’ 즉, 나를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에 고루 베풀어지는 사랑인 것이다.<sup>14)</sup>

또한 天地之心을 통해 자연의 변화는 맹목적인 기계적 운동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뜻(生意)을 가지고 진행되며, 여기에서 생명적 연대감에 기초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찾고, 인간은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sup>15)</sup>

이상에서 보면 儒敎에는 環境論과 관련된 認識論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儒敎인들이 제시하는 환경에 대한 狀況論은 주로 생활 속의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sup>16)</sup> 經典 속에서 그 근거를 찾는 작업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12) 성진, 「환경보호를 보는 유교적 시각: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종교와 환경』(환경윤리 종교인 선언대회 기념자료집: 1993), pp.161-162.

13) 성진,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164.

14) 최형식,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의 인간과 환경: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170.

15) 최영진, 「유학에서의 정치와 자연관: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p.212-217.

16)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한 실천사항: 가정에서 —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합시다, 자녀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시다, 음식물을 남기지 말고 낭비하지 마시다, 합성세제를 적당량만 사용합시다, 사회에서 — 칫솔, 껌껌 등 공중위생질서를 해치는 일을 삼갑시다, 나혼자만은 괜찮겠지라는 이기심이나 무관심을 버립시다, 오늘의 절약은 내일의 풍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환경사건이 발생하기전에 항상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집시다, 국가에서 — 환경문제를 국정의 우선순위로 해결합시다, 사회, 문화적으로 환경보호분위기를 조성합시다, 쓰레기 재사용 및 재생산업에 적극 투자합시다,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홍보합시다(『종교와 환경』, 앞의 책, pp.175-176).

## d. 佛敎와 自然主義

佛敎에서는 緣起의 개념을 중심으로 世界觀과 人間觀이 설명된다. 緣起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연관이 배제된 채 고립된 單獨者로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변화를 부정한 固定態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진단이다. 즉 緣起의 시각에서는 모든 존재를 ‘상호의존적 연관구조’이며 ‘끊임없는 변화과정’으로 파악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존재는 절대적 자기實體가 없다’는 諸法無我的 진리이며, ‘모든 존재는 결코 항상적인 자기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諸行無常의 진리이다. 諸法無我和 諸行無常은 緣起를 바라본 두 가지 측면이다. 따라서 緣起의 입장에서는 단독자 혹은 唯一者나 불변하는 절대적 요소 등을 근원적으로 부정한다.

佛敎의 緣起的 世界觀은 사물들의 상호 의존적 연관성과 운동 변화성을 철저히 일관되게 고수하며, 이것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토대로 놓는다. 佛敎의 緣起法은 물리현상, 생명현상, 정신현상 전반을 관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각각의 내적 현상은 물론이고 그 전체를 모두 重重疊疊의 상호 의존적 연관구조로서 파악하는 것이다.<sup>17)</sup>

佛敎의 핵심사상은 인간의 해방, 나와 너의 해방이다. 그리고 그 단계는 바로 인간의 해방,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 나의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해방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이곳’이라는 이야기이다.<sup>18)</sup>

상호의존적 연관구조 속에서의 인간의 문제란, 결국 인간과 주변의 상호의존구조에 있어서 문제해결 주체로서의 인간의 문제이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족과의 상호의존 구조 속에서의 자신의 문제가 결국 민족과의 상호의존적 연관구조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인류와 자연의 문제와 상호의존 연관되어 있다. 개별 인간에게는 그것이 가족관계의 문제든 혹은 민족의 문제든 인류, 자연과의 문제든 각각 특수성과 보편성을 갖고 다가온다.<sup>19)</sup>

또한 환경문제의 근원에 대한 설명은 三毒心에서 발견할 수 있다. 貪·瞋·癡가 바로 그것이다. 貪이란 대상에 대한 소유를 독점하고 확대하려는 작용이

17) 법륜, 「불교의 세계관에서 본 환경문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62.

18) 법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p.73-74.

19) 법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p.74-75.

다. 이 탐욕은 소유의 독점과 확대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소유욕구를 확대 재생산한다. 嘔이란 대상을 보다 철저히 지배하고 이 지배를 확대하려는 작용이다. 이 嘔心은 지배의 확대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지배욕구를 확대 재생산해낸다. 癡란 이렇게 대상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대상을 더 많이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환상을 말한다.

이러한 탐·진·치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인간 삶을 죽음으로 이끄는 독에 비유하여 三毒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삼독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도 하다. 즉 탐은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야기하고 진은 지배·종속의 계급구조를 낳으며, 치는 집단적인 ‘최면과 허위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sup>20)</sup>

한편 이렇게 제기된 환경문제의 극복방안은 戒·定·慧, 三學에서 찾을 수 있다. 육체의 암이 제거될 때만이 인간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인간 개인의 참행복과 인류의 미래도 이 삼독을 제거할 때만 보장된다. 이것의 제거는 개인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며(戒), 대상의 지배·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무분별한 욕망을 지배함으로써 만족을 느끼고(定), 그것이 진정 전체와 자신 스스로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존재의 상호의존적 연관구조를 자각하는(慧)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또한 삼독구조의 제거는 사회적으로 평등적 경제구조를 만들고 민주적 정치구조를 건설하며, 삶의 질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삶의 사상’을 정립·실현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이 삼학에 의해 삼독을 제거하는 것은 본래의 상호의존적 연관관계를 자각하는 것이며, 인간의 궁극적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내면의 삼독심과 삼독구조의 제거를 자신의 삼독심 제거를 위한 첩경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을 修行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행의 관점에서 있을 때, 즉 삶의 질을 전환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있을 때만이 스스로의 삶의 주체로서 그리고 모든 인간문제의 해결주체로서 나설 수 있다.

佛敎에서는 모든 삶의 과정을 수행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실제수행을 하는 데로 맞춘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삶의 여러 측면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 니 이는 더욱 그러하다. 환경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활양식 전환

20) 법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p.77-78.

은 수행과 직결되어 있다.

환경운동이 佛敎의인 수행과 연결될 때 생활양식 자체를 전환하고자 하는 혹은 전환된 실천 주체에 의해 힘있게 추진될 수 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려 하거나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나서는데 대해 佛敎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원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의 문제에서 볼 때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sup>21)</sup> 또한 佛敎의 계율에서도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규범은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sup>22)</sup>

21) 법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p.78-79.

22) 법현,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p.81-83.

1) 비구계의 90파일체에 나타난 환경보전관계 조문: • 땅을 파지 말라(골포장 건설과 같은 무분별한 건설을 금지). • 살아있는 나무를 찍지 말라(생명존중). • 벌레가 있는 물을 사용하지 말라(생명존중). • 아무데나 불을 놓지말라(생명존중 및 대기오염 방지). • 고의로 축생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야생물을 보호하는 생명존중). • 뺨, 상아, 뿔같은 것으로 바늘 등을 만들지 말라(야생동물 포획금지).

2) 비구니 178파일체에 나타난 환경보전관계 조문: • 벌레가 있는 물로써 흙을 이기지 말라(생명존중). • 아무데나 불을 놓지 말라(생명존중 및 대기오염 방지). • 고의로 축생을 죽이지 말라(야생물을 보호하는 생명존중). • 벌레가 있는 물을 사용하지 말라(생명존중). • 산이나 풀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환경오염 방지). • 대소변을 담 밖에서 보지 말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환경오염 방지).

3) 비구 100시작가라니(sikkhakaraniya)에 나타난 환경보전관계 조문: • 바리 때 씻는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환경오염 방지). • 산이나 풀 위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 물가에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수질오염 방지). •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4) 식차마나 6법계에 나타난 환경보전관계 조문: • 축생의 목숨을 함부로 끊지 말라(야생물을 보호하는 생명존중).

5) 보살계에 나타난 환경보전관계 조문: • 고의로 불을 놓지 말라(대기오염 방지). • 모든 생명을 구호하라(放生, 생명존중). • 나쁜 직업으로 생을 유지하지 말라. •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자비).

6) 사미올에 나타난 환경보전관계 전문: 첫째: 대중에 들어가는 법 • 양치물을 뺨을 때에 머리를 숙이고 뺨아야 하며, 물이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면 못쓴다. • 佛殿 탐방이나 깨끗한 땅, 깨끗한 물에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고 으스스한 곳에 뺨는다(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둘째: 소임하는 법 • 대중에서 쓸 물건을 아껴야 한다(검소한 생활). • 채소를 씻을 때는 물을 세 번 갈아야 한다. • 물을 길올 때는 벌레가 있고 없는 것을 잘 살피되 촘촘한 헝겊으로 걸러서 써야 한다. • 불을 붙일 때는 썩은 나무를 때면 못쓴다. • 음식물을 만들 때 손톱에 때가 있어서는 안된다. • 구정물을 버릴 때 길에 버리면 못쓴다. • 땅을 쓸 때에는 바람을 거슬러 쓸면 안되고, 쓰레기를 문 뒤에 두면 안된다. • 속옷을 빨 때는 이를 잡아내고 빨아야 한다. 여름에는 물그릇을 쓰고 얹어놓아야

이상에서 볼 때 佛敎에서는 認識論의 世界觀과 人間觀이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狀況論의 측면에서도 환경문제의 극복을 위한 경전차원의 규율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지침도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적인 存在論을 위한 분석을 흡수하여 정책 개발에까지 이룬다면 佛敎의 環境論은 완벽한 체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恩 개념을 중심으로 圓佛敎의 世界觀과 人間觀은 설명될 수 있다. 圓佛敎에서는 우주 만물의 근원적 힘을 恩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인간이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네 가지 은혜를 四恩이라 하는데, 이는 圓佛敎 교리의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 사은이라 天地恩, 父母恩, 同胞恩, 法律恩으로서 ‘천지은’이란 천지, 자연의 은혜를 말하고, ‘부모은’은 문자 그대로 부모님의 은혜요, ‘동포은’은 사농공상 등 주로 사회적 은혜를 말하며, ‘법률은’이란 정치, 윤리, 종교 등의 모든 法의 은혜를 말한다.<sup>23)</sup>

同氣連繫란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천지를 부모삼고 우주를 한 집 안 삼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동포 형제인 것이며, 인류뿐 아니라 금수 곤충까지도 본래 한 큰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정산종산 법어 도운편 36장).<sup>24)</sup>

즉 우주만유가 다 일원의 표현 아닌 것이 없어, 일월을 숭배한다 함은 우주만유 무엇을 대하든 부처님 대하듯 경외심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圓佛敎에서는 「處處佛像 事事佛供」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교”이라고도 한다. 즉 불상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 만유가 모두가 알고 보면 우리를 가르치는 부처님이요, 죄복의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라, 따로 佛像앞에 앉아 복을 빌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일 자체를 불공들이듯 정성스럽게 하면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리라는 의미이다.<sup>25)</sup>

---

한다. 재쳐놓으면 별레가 생긴다. • 쌀이나 채소 혹은 과일을 함부로 버리면 안된다. 셋째: 목욕하는 법 • 신발은 반드시 갈아 신어야 하며, 깨끗한 신발로 변소에 들어가면 안된다. • 뒷물을 하고 나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고, 씻기 전에는 물건을 만지지 않는다.

23) 김성곤, 「원불교의 자연관: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115.

24) 김성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118.

佛敎에서는 존재 — 생명이라기보다는 — 를 전통적으로 3가지로 구분한다. 우주는 그 존재의 양식에 있어서 ‘성주괴공’하고 사람의 육신은 ‘生老病死’하며 인간의 마음은 ‘생주이멸’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합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諸行無常’한다고 한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는 뜻인데 ‘무상’을 허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무지이다.<sup>26)</sup>

문제는 이런 원리 — 우주가 성주괴공하고 육신이 생로병사하고 마음이 생주이멸한다 — 를 알면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佛敎적으로 말해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이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sup>27)</sup>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현상이 집합된 총체적 존재이다. 이런 전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는 채소를 먹고 물을 먹는 등 물질을 먹고 자라게 되지만 물질이 오염되면 나는 병이 들게 되고 아무리 정신현상이 중요하다 해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하나의 생물이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의 결합과 정보의 결합에 의해 내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결합의 하나 하나가 모두 생명인 것이다. 바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인 것이다.<sup>28)</sup>

이상과 같은 圓佛敎의 내용을 볼 때 圓佛敎에서도 앞서 분석한 佛敎에서의 狀況論과 存在論을 기대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는 圓佛敎 불자들의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환경문제의 소박한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 e. 老莊思想과 自然主義

道家는 自然主義라고도 말해진다. 法自然 즉, 자연을 표준으로 스승을 삼는다는 것은 자연에 따라서 생각하고, 자연에 따라서 말하고, 자연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자연을 일컬을 수 있는 용어는 없으며, 말로써 표현되는 자연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다”(自然者 無稱之言 窮極之辭<sup>29)</sup>). 자연은 자연이 아니라, 자연의 한

25) 김성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앞의 책, p.121.

26) 최희공, 「사은과 환경윤리: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132.

27) 이오은, 「환경문제와 종교의 사명: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148.

28) 이오은,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149.

29) 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82.

부분인 事物을 말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우리는 이를 원래의 자연과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감각이나 사유에 의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sup>30)</sup>

莊子の 자연은 天, 道, 自然의 세 가지 개념이 얽혀있다. 도는 언제나 무위하지만 그에 의해 안되는 것이 없으므로 동시에 無不爲라 한다. 그리고 도는 무위할 뿐 아니라 자연하다고도 말해진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무위와 자연은 표리관계에 있으며, ‘道常無爲而無不爲’라고 한다.<sup>31)</sup>

물론 여기에서의 자연이 인간의 활동 대상으로서 서구적 의미에서의 자연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의미에서는 포괄적으로 외부세계로서의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개념은 인간의 자연 속에서의 지위를 규정하는 世界觀과 결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개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은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며, 단지 자연을 도구적인 의미에서 파악하는 人間觀은 도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道家의 자연개념을 볼 때 우리는 인간본성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으며 자연을 서구적인 개념으로서 기술이나 이성을 가지고 대상으로 삼는 人間觀은 道家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자연개념을 통하여 조화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老子와 莊子は 바로 이와 같은 도의 자연을 행위의 최고표준으로 삼았던 까닭에 法自然 또는 順自然이라고 말한 것이다. 순자연은 자연에 따르는 것으로 자신의 의도, 목적, 욕구, 선입관 등의 일체를 버려야 한다. 욕구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실현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다.<sup>32)</sup>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물을 사물 그 자체로 보고, 道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道란 일체 사물들의 本體이기 때문이다.

장자에 ‘天地與我並生立 萬物與我爲一’ 즉, 천지는 나와 함께 살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라는 구절이 있다. 장자에 의하면 자연은 원래 평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자연계에 인간이 등장함으로써 환경을 변형, 개조하고 자연

30) 이강수, 「노장철학의 자연관: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83.

31) 이강수,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86.

32) 이강수,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87.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만능의 도구로 삼아 자연계를 조작한 결과로 결국 지구 속의 생태계는 끊임없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다.<sup>33)</sup>

한편 道家의 사상을 非分割主義, 多元主義, 開放主義, 理性主義, 合理主義<sup>34)</sup>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상에서 우리는 道家에서 認識論의 인 측면에 요소 즉 世界觀과 人間觀의 요소가 哲學的 또는 윤리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認識論이 환경문제와 관계없는 시대상황 속에서 성립·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道家에서 환경에 대한 存在論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환경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認識論을 구체적으로 정치관과 경제관에 적용시켜 본다면 道家에서 認識論을 바탕으로 한 存在論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 f. 東學思想과 環境論

해월신사의 十毋天은 한울님을 속이지 말라(毋欺天), 한울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毋慢天), 한울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毋傷天), 한울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毋亂天), 한울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毋夭天), 한울님을 더럽히지 말라(毋汚天), 한울님을 주리게 하지 말라(毋餓天), 한울님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毋壞天), 한울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毋厭天), 한울님을 굴하게 하지 말라(毋屈天)<sup>35)</sup> 등이다. 이러한 十毋天을 통한 養天主의 방법은 天地父母 一體說과 生命思想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天地父母 一體說은 천지가 모든 사람의 부모이며 땅과 인간이 하나임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천지를 외부세계로서의 자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父母 一體說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규정하는 東學의 世界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천지와 부모가 일체이고 땅과 인간이 일체라고 봄으로서 인간과 자연은 결국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人間觀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연히 東學에서 生命思想은 도출된다. 生命思想은 우주만유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이며 우주의 본체는 “至氣”라고 본다. 至氣는 한울님의 지극한 기운

33) 이강수,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p.91-92.

34) 이강수,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p.93-94.

35) 임운길, 「동학에 나타난 세계관과 자연관」,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p.180-181.



이며 만물을 화생하는 대우주의 정신, 대생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人吾同胞 物吾同胞’라는 표현을 통하여 천지부모 일체식으로 우주만유와 각자의 생명은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敬天·敬人·敬物の 三敬사상은 十母天의 실천과 관련된다.<sup>36)</sup> 한울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하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간활동 대상으로서의 자연 즉 환경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볼 때, 東學에서는 環境論과 관련하여 다른 사상체계와 마찬가지로 認識論의 측면에서 분명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敬物과 관련하여 환경상황에 대한 인식 즉 現象論의 측면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東學에서는 환경오염이나 파괴에 대한 인식을 교리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認識論이 現象論에 대한 철저한 판단을 바탕으로 存在論으로 발전하면 東學에서도 단순히 생활 속의 실천이나 인식의 대전환과 같은 宗教的 차원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적인 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東學을 바탕으로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인 김지하의 노력은 바로 환경운동과 직결된다.

### Ⅲ. 한국적인 環境論의 모색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적인 정치, 경제의 개념으로 삼고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물론 서구의 개념이다. 하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념도 한국적인 상황에 적용되면서 우리 나름의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독특한 설명체계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정치적, 경제적인 지향 목표가 서구이론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서구이론 자체 내에서도 다양한 설명체계와 논의는 제시되고 있다. 環境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環境論이 서구에서 형성·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적인 자본주의 특성 하에서 우리 나름의 環境論이 전개될 것은 틀림없다. 물론 세계 무역체제나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의 영향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36) 임운길, 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앞의 책, pp.193-194.

아니다.

한국의 전통사상 체계를 볼 때 전체적으로 認識論的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 巫俗·儒敎·佛敎·老莊思想·東學思想에서 공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은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자연은 조화되지 않고는 서로의 존재가 성립될 수 없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필요로 하고 자연 또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을 필요로 한다.

한국전통사상은 환경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시대상황 속에서 도입·수용·발전되어 왔다. 그러므로 한국전통사상과 環境論을 결합시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윤리차원이나 실천차원에서의 시사점은 발견할 수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정치경제학적인 여러 요소들의 비판의 내용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정치이념의 비판과 재검토 또는 정책대안의 제시도 모두 우리의 인식의 대전환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할 때 한국전통사상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存在論에 대해 갖는 의미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윤리와 실천을 통해 정책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人間觀과 世界觀의 형성 즉, 윤리와 실천을 통해서 효율성을 갖고 실현된다고 볼 때 한국전통사상이 環境論에 대해 갖는 의미를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통사상의 체계는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宗教的 차원에서 생활 속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환경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정치경제학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이나 대안의 제시 없이도 종교인들이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실천덕목들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환경문제는 해결된다. 각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교인의 숫자를 전부 합하면 남한의 인구보다 많다고 한다. 종교적 차원의 실천으로 환경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각 교단에서 환경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환경문제는 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환경론과 관련하여 존재론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